

살아있는 화석 '투구게'... 방생으로 멸종 위기

홍콩 환경보호론자들 "잘못된 방생문화 해양 생태계 위협"

현존하는 오래된 생명체 가운데 하나인 투구게가 불자들의 방생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다.

홍콩 영자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월 11일(현지시간) 홍콩 불자들의 방생문화를 보도하며 "무분별한 해양 생물체 방생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예로부터 사찰에서는 불교도들이 해마다 일정한 때에 방생을 하고자 방생계(放生契)라는 것을 조직해 방생회(放生會)를 열어오고 있다. 불자들은 식탁에 올리는 게, 물고기, 조개 등을 구입해 방생함으로써 자신이 선업을 쌓는다고 믿어왔다.

홍콩불교방생회는 툴란 부두에서 진행되는 방생활동으로 3년간 140만 마리의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한다. 방생회는 매주 한번 20~30명의 불자들을 모집해 아침에 열리는 수산시장에서 살아있는 수생동물을 사서 바다에 방생한다.

방생모임을 주관하는 로사 쉐는 "방생을 위한 수생동물은 기부를 통해 구입하며, 방생에 쓰이는 돈은 1만 홍콩달러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쉐는 "우리가 투구게를 방생하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감사해야 한다. 아무도 투구게를 먹지 않을 것이며 어부들은 단지 투구게를 잡기만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같은 행위로 투구게가 생존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수중생태계 전문가인 케네스 림 메이 홍콩대 교수는 "방생을 하는 불자들은 자신들이 투구게를 살려주고 있다고 생

각한다. 하지만 사실상 방생은 그들을 죽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투구게를 오염이 된 부두나 바닷가 근처에 방생할 경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림 메이 교수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양식 수생동물을 그대로 방생하면 급격한 환경변화로 생존확률이 감소한다"며 "뿐만 아니라 외래어종의 경우는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해 홍콩 해양 생태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총위 오션파크 보존재단 교육 관리인은 "수많은 생명체들이 진화하거나 멸

2억 년 전부터 생존

대부분 중국 연안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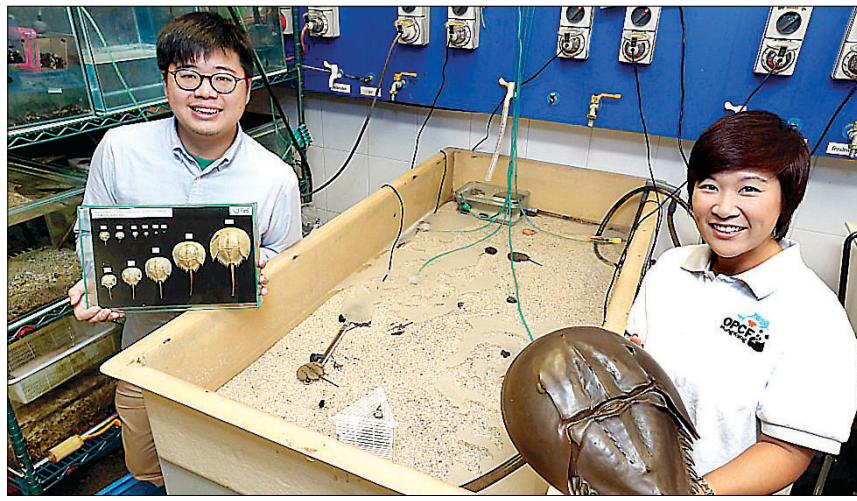
멸종위기 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처벌 불가한 상황

중하는 동안 투구게는 거대 화산폭발과 소행성 충돌, 빙하기를 거치며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려왔다"며 "인간은 지구상에 출현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4억 7500만년을 살아온 생명체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방생을 위해 투구게를 구입하는 행위를 제재할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투구게 번식을 연구하는 홍콩 시티대 학교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현재 투구게의 60퍼센트가 방생을 위해 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생물체에 대한 정



홍콩은 현존하는 투구게 가운데 2개의 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생태 전문가들은 7천마리 정도의 새끼 투구게가 란타우 섬과 북동부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출처=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 수급 부족으로 인해 투구게는 국제적인 멸종위기 생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콩 정부 어농 자연 보호 부서(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漁農自然護理署)는 "이 같은 이유로 어부들이 투구게를 포획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현재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투구게 전문가로 홍콩시티대 박사과정에 있는 빌리 란 씨는 "국제적인 분류가 없으면 멸종위기 생물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래서부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중의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 총위 씨는 "상어 지느러미 요리인 삭스핀을 생각하면 된다. 정부가 상어 지느러미 판매를 금지해도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음식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구입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

식을 바꿔 삭스핀 먹는 것 자체를 그만둔다면 결과적으로 상어를 파는 시장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생존하는 투구게 종(種)에는 3속(屬) 5종이 알려져 있으며 2억 년 전 모습과 거의 같은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린다.

투구게의 종은 아시아에 서식하는 투구게(Tachypleus tridentatus), 남방투구게(Tachypleus gigas), 맹그로브투구게(Carcinoscorpius rotundicauda)가 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서식하는 아메리카투구게(Limulus polyphemus)가 있다. 아시아에 서식하는 투구게는 대부분 중국 연안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홍콩은 현존하는 투구게 가운데 2개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생태 전문가들은 7천 마리 정도의 새끼 투구게가 란타우 섬과 북동부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투구게들은 새끼일 때 갯벌과 같은 진흙이 많은 바닷가에서 서식하다 산란기가 되면 바다로 들어간다. 이보형 객원기자

안젤리나 졸리, 등에 '불교 문신' 새겨

캄보디아 스님으로부터 새긴 것으로 알려져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불교 문양 타투(tattoo; 문신)를 새겨 이목을 끌고 있다.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는 자신의 등에 '평화, 사랑, 번영한 삶을 위한 부처의 기도'란 불교적 의미가 담긴 타투를 새겼다. 이 문양은 전통적인 동남아시아 불교 미술에서 근원한 것으로, 졸리의 등에는 크게 3가지 형태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E! online'은 2월 9일 "안젤리나 졸리가 영화촬영으로 캄보디아에 머무르는 동안 현지에서 3개의 거대한 타투를 새겼다"며 "하나의 불교 사원처럼 보이고, 또 하나의 상자 속에 일련의 기호들이 숨어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졸리는 '타투 매니아'란 별칭을 얻을 만큼 타투를 즐기기로 유명하다. 결혼 후엔 자녀 입양을 앞두고 상징적인 의미로 타투를 하는 등 타투로써 남편 브래드 피트(Brad Pitt) 혹은 6명의 자녀들에 대한 애착을 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타투에도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 거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해외잡지 'vanityfair'는 "졸리의 타투 대부분은 그녀의 관계 또는 자녀들에 대한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내포된 의미는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 다만 이번에 새긴 타투는 졸리가 아들 맥독스(Maddox)를 입양할 때 왼쪽 어깨에 새긴 것과 그 문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통해 짐작해볼 뿐"이라고 언급했다.



영화제작으로 인해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는 자신의 등에 '평화, 사랑, 번영한 삶을 위한 부처의 기도'란 불교적 의미가 담긴 타투를 새겼다.

이어 'vanityfair'는 "졸리의 타투는 스님이나 특정 기술가에 의해 작업된 것으로 보인다"며 "졸리는 태국 등 동남아 일대의 전문 타투가들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젤리나 졸리는 캄보디아에서 영화 'First They Killed My Father(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를 제작·촬영 중이다. 이는 캄보디아 인권운동가 로옹 응의 자전적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티베트 고승 살해한 티베트족 2인 '사형'

2013년 유럽 최초 사원 설립자 아궁 린포체 살인죄

유럽에 최초 티베트 사원을 세운 티베트 고승을 살해한 티베트족 2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영국 일간신문 '가디언'은 2월 2일(현지시간) "중국 법원이 영국으로 망명한 티베트 고승을 살해한 티베트족 2명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스완성 청두(成都)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13년 10월 영국 국적의 70대 티베트 불교 승려 아궁 린포체를 흉기로 난자(亂刺)해 죽인 덩구상

(登古桑)과 츠린반자오(次仁班覺)에게 고의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종신 징역권리 박탈 및 극형 판결을 내렸다.

6살 때 활불(活佛)로 인정을 받은 아궁 린포체는 티베트 동란 후 1958년 인도로 망명했다. 1967년 영국으로 이주해 영국 티베트 지원 기금회 주석을 지내며, 유럽 최초 티베트 불교 사찰인 '삼에링 명상센터'를 스코틀랜드에 세웠다.

아궁 린포체는 그간 중국 내 티베트족 지원활동에 나서며 중국 당국과 좋은 관



활불(活佛)로 인정받은 티베트 출신 승려 아궁 린포체는 스코틀랜드에 삼에링 명상센터를 세우는 등 유럽에 불교를 전파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사진출처=가디언

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그가 일군 스코틀랜드 사찰은 지난 달 세상을 떠난 팝스타 데이빗 보위, 가수이자 시인인 레너드 코헨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유명하다.

한편 선고공판은 지난달 29일 열렸으며,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들이 금전적인 다툼 끝에 아궁 린포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범인들이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족을 탄압하는 중국 정부와 가까운 아궁 린포체를 '변절자'로 판단, 정치적 동기로 죽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천년만중 동자승 사진 '인기'

중국 동자승 사진이 수천만 네티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중국 인민망은 중국 충칭시 허촨구에 있는 열탑사에서 천년만중하게 웃고 있는 1살 3살 밖의 동자승 사진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자승의 부모는 1월 1일 가족과 휴일을 보내던 중 2015년에 상영된 중국 애니메이션 '몽키킴:영웅의 귀환'에서 착안, 아들들에게 동자승복을 입혀보기로 결정하고 열탑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자승의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순식간에 조회수 수백만 건을 돌파했으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스님(cutest young monk)'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보형 객원기자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립니다.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은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신성불상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